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합니다

Korea NU10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KOREA NU10

K O R E A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1 0



DECEMBER 2025

VOL.30

무대 위의 젊음, 캠퍼스를 물들이다

Youth Takes the Stage, Painting the Campus

발 간 등 록 번 호

11-7000126-000051-08

ISSN 2635-411X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KOREA NU10

K O R E A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1 0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DECEMBER 2025 VOL.30

발행일 2025년 12월(통권 제30호)
발행인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작 굿디자인연구소(T.051-796-6600)

Date of issue 12/2025 (Vol.30)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 051-796-6600)



Cover Story

무대 위의 젊음,
캠퍼스를 물들이다
Youth Takes the Stage,
Painting the Campus

메인 이슈 Main Issue

무대 위의 젊음, 캠퍼스를 물들이다 **04**
Youth Takes the Stage, Painting the Campus

K-NU10 뉴스 News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서 만난 10개 거점국립대, **18**
연대와 혁신의 비전을 말하다
제4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및
2025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제전 개최
KNU10 Unite for Solidarity and Innovation at the
Cor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4th KNU10 Presidents' Council and
2025 KNU10 Festival Conclude

K-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2
경상국립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4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26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32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34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6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8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40

K-NU10 회원대학 소개

Information to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42**



YOUTH

무대 위의 젊음,
캠퍼스를
물들이다

무대 위의 젊음이 캠퍼스를 물들이다. 전국 10개 거점대학의 가을 축제 현장은 학생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교차하는 생동감 넘치는 장이었다. 화려한 공연과 체험 부스, 푸드트럭과 포토존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대학 공동체의 에너지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적 장으로 자리했다. 각 대학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학생 주도의 기획은 청춘의 자유와 도전 정신을 보여주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까지 아우르는 열린 대학문화를 실현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축제 현장의 다양한 순간을 기록하고, 변화하는 청춘과 오늘날 대학문화의 모습을 다층적 시선으로 조명한다.

Youth is taking the stage and painting the Campus. The autumn festivals at te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ere vibrant scenes where student passion and creativity intersected. The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transformed these events—packed with performances, booths, food trucks, and photo zones—into cultural spaces showcasing the university community's energy and identity. The distinct programs and student-led planning at each university demonstrated the freedom and challenging spirit of youth, realizing an open university culture that embraces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special feature documents the various moments from the festival, shedding light on the changing face of youth and contemporary university culture from a multi-layered perspective.

TAKES THE
STAGE,

PAINTING THE
CAMPUS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캠퍼스를 넘어 도심으로: 대학과 도시가 함께 만든 청춘의 현장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대구 동성로는 젊음의 활기로 가득 찼다. 대구-경북 지역대학들이 연합해 개최한 '대학페스타'가 이틀간 도심 곳곳을 축제의 장으로 확장시키며, 학생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냈다.

메인 무대에서는 각 대학의 동아리 공연과 학과별 프로젝트 무대가 이어졌고, 도심의 일상적인 소음은 음악과 함성에 자리를 내줬다. 관객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공연의 일부였다. 무대 앞에서 잠시 멈춰 함께 박수를 치고, 즉석 요청곡을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은 도심이 잠시 캠퍼스처럼 변한 순간이었다. 체험 부스들은 대학 안에서만 이뤄지던 활동들을 거리 한복판으로 끌어냈다. 공학예술 전시, 창업 아이템 홍보, 동아리 참여 프로그램 등은 시민들이 '대학의 오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이 가운데 경북대학교 부스는 유난히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경북대는 임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존을 운영해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내년 개교 80주년을 맞는 경북대의 역사와 상징을 간단한 퀴즈 이벤트로 구성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정답을 맞힌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고, 이를 통해 경북대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누구나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었다. 대학 홍보임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지역민과 대학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

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번 페스타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여러 대학이 '연합'이라는 방식으로 도심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지역 대학 전체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며 도심 속에서 공동의 무대를 일군 것이다. 서로 다른 캠퍼스 문화가 만나는 과정에서 경쟁은 에너지가 되었고, 협력은 새로운 실험으로 발전했다.

여기에 '도심 살리기'라는 시대적 화두도 자연스럽게 엮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상권 변화 속에서 지역 도심은 새로운 활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학 페스타는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도시 재생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젊은 인구의 이동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대학 문화를 소비자가 아닌 '참여자'로 경험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도심은 축제를 통해 잠시 활력을 얻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지역과 상호작용할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페스타 곳곳에서는 색다른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 대항전 형식의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캠퍼스 문화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내는 장면을 연출했고, 그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와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이는 축제가 단순한 홍보 행사를 넘어 지역대학청년이 공동으로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문화적 장임을 보여줬다.

도시 한복판의 축제가 시민들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한 볼거리만이 아니다. 대학과 지역이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며 만들어낸 만남은 '함께 사는 도시'의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장면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대학이 도심과 연결된

형태의 축제를 꾸준히 시도한다면, 청춘의 에너지는 지역 문화의 생태계를 살리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다.

Beyond the Campus and into the City Center: A Youthful Stage Created Together by Universities and the City

On October 31st and November 1st, Daegu's Dongseong-ro street was filled with the vitality of youth. The 'Daehak Festa' (University Festival), hosted jointly by universities from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s, expanded into a festival venue across various parts of the city center for two days, creating a special experience where local students and citizens harmonized together.

On the main stage, performances by university clubs and project exhibitions by various departments continued one after another, while the usual noise of the city center yielded to the music and cheers. The audience members were not merely spectators; they were often part of the performances. Many citizens stopped briefly in front of the stage to clap along or shout out spontaneous song requests, marking a moment when the city center briefly transformed into a campus-like environment. The experience booths introduced activities usually confined within the university out into the middle of the downtown city streets. Engineering and art exhibitions, startup merchandise promotions, and club participation programs became channels through which citizens could directly experience 'the university of today.' Amidst these activities,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booth notably captured the attention of many citizens. KNU operated a counseling zone that provided admissions information, receiving strong interest from high school students and parents. It also organized a simple quiz event about KNU's history and



school symbols as a way to celebrate its upcoming 80th anniversary next year, allowing citizens to also easily participate in the celebration. Citizens who answered the quiz correctly were given small souvenirs, which allowed anyone to have fun experiencing the identity and story of KNU. It was a type of university promotion that felt unburdensome, creating a scene where the local community and the university could naturally grow closer through participatory content.

This festival wa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the multiple participating universities entered the city center by forming an 'alliance,' in which the entire collective of regional universities planned and operated the event together, cultivating a shared stage within the city center. Through this process, in which different campus cultures met, competition became energy, and cooperation developed into new experiments.

From these new experiments, the timely idea of 'revitalizing the city center' naturally emerged. Amid the current decrease in the student-age population and the changes occurring in commercial districts, regional city centers require new vitality. The Daehak Festa thus serves as an example of how the university can go beyond being a simple educational institution to become an agent of urban regeneration in the current moment. The event was designed to induce the movement and participation of the young population, allowing citizens to experience university culture not as 'consumers' but as 'participants.' The city center briefly regained its vitality through the festival, and students could feel firsthand that their culture holds even greater meaning when it is interacting with the local community.

Unique scenes could be observed throughout the Daehak Festa venues. Programs structured as inter-university competitions created moments where diverse campus cultures met and generated new synergy, and in that process, integ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naturally occurred. This demonstrated that the festival was more than a simple promotional event; it was a cultural platform for the local community, universities, and youth to jointly reconstruct their own identities.

This festival in the heart of the city gifted its citizens with more than just sights to see. The encounters created by the universities and the community, sharing each other's spaces, was also a moment that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 'city where we all live

together.' If local universities can continue to regularly hold such festivals linked to the city center, then the resulting youthful energy will become yet another driving force i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ultural ecosystems.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개척대동제·오월제로 청춘의 낭만과 열정 발산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는 9월 15~17일 가좌캠퍼스에서 '2025 개척대동제 PIESTA(PIONEER & FESTA)'를 개최했다. 축제 기간 캠퍼스 곳곳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대동제를 대표하는 무대 프로그램으로 △보디빌딩 대회 '피지컬 X' △경상국립대 가요제 'P.V.P' △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졌다. 매일 밤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학생들은 축제를 단순한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청춘의 자유와 상상력을 발현시키는 무대로 즐겼으며 모두 하나 됨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박한세 총학생회장은 "재학생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의 에너지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경상국립대 총동아리연합회는 5월 14~15일 가좌캠퍼스에서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이라는 주제로 '2025년 오월 동아리 대축제'를 열었다.

하재필 학생처장은 "대학 문화는 동아리 문화이다"라며 "동아리 회원들의 다양한 취미와 특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로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엿보는 기회가 되었

다"라고 말했다.

Students Channel Youthful Passion and Romance at Gaecheok Daedongje and the May Festival

The Student Counci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osted the "2025 Gaecheok Daedongje PIESTA (PIONEER & FESTA)" from September 15 to 17 at the Gajwa Campus. During the festival, diverse programs held across campus brought together not only students but also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The main stage programs included the bodybuilding competition "Physical X," the GNU song festival "P.V.P," and performances organized by student clubs. Each evening, popular artists took the stage, elevating the festive atmosphere. For the students, the festival was not just entertainment but a platform to express the freedom and imagination of youth, creating a precious opportunity to affirm their unity. Student Council President Park Han-se said, "It was a time for all students to feel the university's vibrant energy through programs everyone could enjoy." Meanwhile, GNU's General Club Association held the "2025 May Club Festival" from May 14 to 15 at the Gajwa Campus under the theme "Hwayangyeonhwa (花樣年華): The Most Beautiful Time of Youth."

Ha Jae-pil, Dean of Student Affairs, remarked, "University culture is shaped by student clubs. This festival showcased the diverse



hobbies and talents of club members at a glance, offering a glimpse into what students, who are spending the most beautiful moments of their youth, truly seek.”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 대동(大同)과 열정으로 청춘과 시대정신을 노래하다
매년 5월 봄에는 젊음의 축제 ‘대동제’,
가을에는 10.16부마민주항쟁 기리는 ‘시월제’ 개최
가수 김연자 씨 장학금 기부...축제 때마다 아름다운 인연 화제

부산대학교는 캠퍼스의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5월 봄 ‘대동제’ 축제와 가을에는 부산대에서 시작된 10.16 부마민주항쟁의 시대정신을 기리는 ‘시월제’ 행사를 매년 개최하며 청춘을 불사르고 있다.

올해 2025년 봄 대동제는 총학생회와 대학원총학생회가 공동 주최해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동의 순간, 청춘을 수놓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학 축제이면서도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자 농구 축구 등 스포츠 대회부터 버스킹, 가요제, 부스 행사, 야시장, 다양한 힐링 콘서트까지 3일간 심 없는 이야기로 건전한 캠퍼스 대학 문화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대동제 마지막 날 초청가수로 무대에 오른 51년차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와 부산대의 아름다운 인연은 사회적 큰 관심거리가 됐다. 열정적으로 관객과 호흡하며 뜨거운 무대를 선보여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은 김연자 씨는 이날 공연 중 부산대 학생들을 위해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해 큰 감동을 줬다. 사실, 김연자 씨와 부산대의 특별한 아름다운 인연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젊음의 대학 축제에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를 초청하자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공연 당일 오히려 부산대 학생들과 지역민들은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에 객석을 가득 메우며 열광했고,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연자 씨는 이에 감동해 같은 해 가을 축제인 ‘시월제’에 다시 부산대에 초청받아 ‘무료 공연’을 펼쳤는가 하면, 부산대 학생들을 위해 소속사 대표와 함께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후 TV방송 때창 프로그램에 부산대 학생들을 초청해 경연에 참가하는 등 부산대 학생들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고, 올해 축제에도 초청돼 공연 후 장학금 1,000만 원을 또 기부하며 진심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편, 올해 가을 시월제는 진학취업창업 박람회로 마련된 ‘커리어 페어’ 행사에 맞춰 예년보다 당겨진 9월 중순에 개최돼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와 축제가 함께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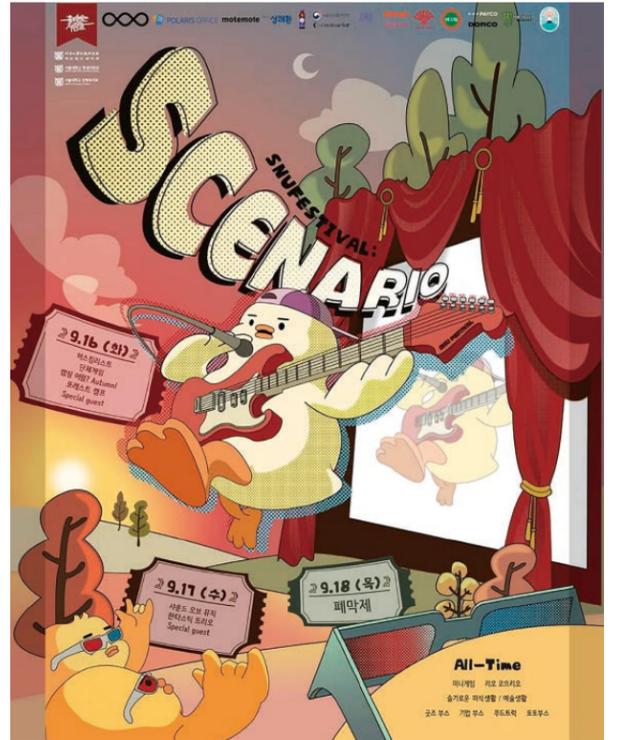
Pusan National University Sings of Youth and the Spirit of the Times with Daedong and Passion!
In May, the Spring Festival “Daedongje,” and in Fall, the “Shiwol Festival” Commemorating the October 16 Busan-Masan Democratic Uprising Are Held Annually
Singer Kim Yeon-ja Donates Scholarships... A Beautiful Bond Draws Attention at Every Festival



Pusan National University is a campus where youth and vitality flourish, highlighted each May by the spring “Daedongje” festival and each fall by the “Shiwol Festival,” an event that commemorates the spirit of the October 16 Busan-Masan Democratic Uprising, which bega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year’s 2025 Spring Daedongje was co-hosted by the Student Council and the Graduate Student Council and was held for three days from May 28 to 30 under the theme “Moments of Unity, Embroidering Youth.” Although a university festival, it sought to connect with local residents, presenting a wholesome campus culture through three days filled with activities such as basketball and soccer tournaments, busking, a singing contest, booth events, a night market, and various healing concerts. In particular, the beautiful connection between 51-year veteran trot singer Kim Yeon-ja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who took the stage as the guest performer on the final day of this year’s festival, became a major topic of public interest. Passionately engaging with the audience and delivering a fiery performance, Kim received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the students. During her performance, she donated 10 million won in scholarships to Pusan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touching many hearts.

In fact, the special and beautiful relationship between Kim Yeon-ja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dates back to 2018. At that time, inviting trot singer Kim Yeon-ja to a youth festival raised concerns, but on the day of the performance, PNU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filled the venue and responded with overwhelming excitement to her song “Amor Fati.” Moved by this, Kim was invited back to Pusan National University for that year’s fall festival, “Shiwolje,” where she gave a free performance. Along with the CEO of her agency, she also donated 10 million won to PNU students. She continued this special relationship by inviting PNU students to appear on a televised group-singing program. Invited again to this year’s festival, she donated another 10 million won in scholarships after her performance, showing her sincere support. Meanwhile, this year’s fall Shiwol Festival was held earlier than usual, in mid-September, in line with the “Career Fair,” an event organized to support students in exploring university pathways,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thereby offering both a festival and an opportunity for career exploration.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축제에 장벽은 없다, 2025 가을 축제 SCENARIO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은, 흔히 고독의 계절로 표현되곤 한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매년 이맘때 가을 하늘 아래 하나 되는 경험을 한다. 방학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9월, 가을 축제에서 다양한 부스와 공연, 캠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16일(화)부터 9월 18일(목)까지 진행된 가을 축제 ‘SNUFESTIVAL: Scenario’의 현장을 만나봤다.

학생들의 손에서 피어난 부스
 잔디광장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꾸민 다양한 부스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총학생회 산하 기구 ‘축제하는사람들’에서 준비한 네 개의 미니게임 부스와 학생들이 준비한 예술 부스, 음식 부스 등이 참가자들을 반겼다. 체험 부스는 축제 마스크트 ‘리오’와 최근 흥행한 영화 등을 소재로 꾸며져 이목을 끌었다. 축제 둘째 날에는 ‘캠핑 버스킹: 포레스트 캠프’와 함께 음악 공연인 ‘사운드 오브 뮤직’이 열렸다. 학생들이 꾸민 풍성한 무대 덕분에 잔디광장은 한층 더 신나는 장소로 변했다.

버들골을 뜨겁게 달군 폐막제
 축제 마지막 날 버들골에서 열린 폐막제는 학생들의 화려한 무대로 막을 올렸다. 응원단은 ‘관악을 보게 하라’, ‘진리는 나의 빛’ 등 응원가에 맞추어 힘



찬 동작을 선보였으며, 관객석의 학생들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걸고 호응을 보냈다. 학년도, 소속도, 성별도 다른 학생들이 서울대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더 나아가, 이날 폐막제는 배리어프리*한 요소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는 모습이었다. 객석 맨 앞줄 일부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배리어프리존으로 운영되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 자막이 제공되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더라도 함께할 수 있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심리적·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

No Barriers to the Festivities: The 2025 Fall Festival SCENARIO

Autumn, often described as a season of solitude, takes on a different mean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very year around this time, students come together under the clear autumn sky for a shared experience. In September, with the echoes of the summer break still lingering, the Fall Festival offers a blend of diverse booths, captivating performances, and even a camping experience. This year's Fall Festival, "SNUFESTIVAL: Scenario," ran from September 16 to 18.

Student-Led Booths in Full Bloom

The Lawn Square came alive with booths organized by students. Visitors were welcomed by four mini-game booths prepared by the "Festival People (Chukjehaneun Saramdeul)" organization under the Student Council, as well as creative art and food booths organized by various student groups. The experience booths—featuring themes inspired by the festival mascot "Rio" and popular films—drew particular attention. On the second day of the festival, the square came alive with "Sha-ound of Music," a musical performance held in conjunction with "Camping Busk-

ing: Forest Camp." The diverse and engaging stages organized by the students transformed the Lawn Square into an even more vibrant venue.

A Grand Finale at Beodeulgol

The closing ceremony, held at Beodeulgol on the final night, began with dynamic performances by student groups. The SNU Cheerleading Squad showcased powerful routines set to school anthems like "Let Gwanak Be Seen" and "Veritas Lux Mea (Truth is my Light)," while the audience responded enthusiastically, linking arms and cheering along. All distinctions of class year, department, and gender momentarily faded—replaced by a shared sense of belonging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Furthermore, the closing ceremony marked a step forward by incorporating barrier-free* elements throughout the event, fostering a spirit of inclusion. A section of the front-row seating was designated as a Barrier-Free Zon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real-time subtitles were provided on the large screen, ensuring that everyone could participate fully, even those with hearing difficulties.

*Barrier-free: an approach that remov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barriers faced by socially vulnerable groups.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만 5,000명 달군 '용봉대동놀이'... 전남대 참여형 축제 새 모델

전남대학교는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캠퍼스 일대에서 '2025 용봉대동놀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축제는 '용비봉무(龍飛鳳舞)'를 주제로, 대학의 상징인 용과 봉황을 형상화해 전남대의 정체성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제54대 총학생회 '기억'과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부로 준비 단계부터 학생 주도성이 강화됐다. 총학생회는 임원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1,000만 원을, 생협은 2,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해 프로그램 구성과 무대 운영 등에 힘을 보탰다.

29일 대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근배 총장, 강기정 광주시장, 전남대 총동창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학생과 지역 주민 등 약 3만 5,000명이 모였다. 무대에는 현서, 유다빈밴드, 프로미스나인 등이 출연해 열기를 끌어올렸고, 2일차에는 신용재, 잔나비, 다이아믹듀오의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다.

용봉관에서 민주마루, 대학본부에서 후문으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푸드트

럭 15곳이 줄지어 섰다. 스테이크, 보쌈, 크림새우, 케밥, 닭강정, 불초밥, 삼겹살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긴 줄이 생겼고, 방문객들은 "전대 축제는 음식부터 다르다"며 웃음을 보였다. 또한 2023년 전남대 캐릭터 공모전 수상작 '전룡이'를 3D로 구현한 한정판 굿즈가 판매되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전남대는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학교 측은 차량 통제 구간을 지정하고, 100여 명의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질서 유지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사고나 다툼 없이 행사가 원만히 마무리됐다. 행사장 곳곳에는 지역 상권이 참여한 이동식 매점과 음식 부스가 운영돼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근배 총장은 "학생,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남대는 앞으로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매년 가을 '용봉대동놀이'를 통해 학생 자율성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으며, 올해 축제는 기부 참여와 체계적 운영, 높은 시민 참여로 '참여형 대학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Yongbong Daedongpuri Draws 35,000 Visitors, Establishing a New Model for Participatory Festivals

CNU (President: Lee Keun-bae) successfully hosted the 2025 Yongbong Daedongpuri taking place on Gwangju Campus from September 29 to 30. Under the theme "Yongbibongmu (龍飛鳳舞)"—meaning "the dragon flies and the phoenix dances"—this year's festival embodied the university's symbols of CNU's identity and the spirit of solidarity.

This event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it highlighted student initiative from the preparation stage. The 54th Student Council, 'Memory,' and the CNU Coop (Board Chair: Jeong Nan-hee) played key roles. The Student Council voluntarily pooled their scholarship funds to donate 10 million KRW, while the CNU Coop contributed 20 million KRW to the development fund, directly supporting program composition and stage operations.

The opening ceremony, held on September the Grand Stadium, was attended by President Lee, Gwangju Mayor Kang Ki-jung, the President of the CNU Alumni Association, and approximately 35,000 people, including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The excitement on stage was ignited by performances from artists including Hyeonseo, Yudabinband, and fromis_9. On the second day, the festival atmosphere reached its peak with performances by Shin Yong-jae, Jannabi, and Dynamic Duo.

In addition, the street stretching from Yongbongwan to Min-jumaru and from the University Headquarters to the Rear Gate was lined with 15 food trucks. A diverse selection of dishes, including steak, bossam (boiled pork), cream shrimp, kebabs, dakgangjeong (sweet and spicy chicken), and sushi, attracted long queues. Visitors remarked with delight, "Even the food at the CNU festival is on a different level." Adding to the excitement, a special souvenir, limited edition of 3D figurine of "Jeonryongi," the winner of the 2023 CNU Character Contest, was sold on-site, drawing significant attention.



Given the large crowd exceeding 30,000 attendees, CNU prioritized safety management. The university designated vehicle control zones and deployed more than 100 safety personnel and volunteers to maintain order. As a result, the event concluded successfully without any accidents or altercations. Furthermore, mobile stores and food booths in partnership local commercial districts were set up throughout the venue, injecting vitality into the local economy.

President Lee said, "This festival is deeply meaningful as it was created jointly by students, faculty, alumni, and the local community. CNU will continue to foster a festival culture where members participate actively and grow alongside the region."

Through the annual autumn Yongbong Daedongpuri, CNU has consistently emphasized student autonomy and community spirit. This year, by integrating donation campaigns, systematic operations, and high civic engagement, CNU has introduced a new model for a participatory university festival.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 2025 대동제, '글로벌 축제'로 거점국립대의 새 문화를 열다

전북대학교의 가을 축제인 2025 대동제 학문체는 올해 '대동'의 의미를 한층 확장하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 축제로 진화했다. 특히 역대 최초로 학생지원처·국제처·총학생회가 공동 기획해 축제를 진행하며, 내국인 학생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민까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개방형 캠퍼스 문화'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 중심의 행사를 넘어 전북대가 지향하는 글로벌대학 30의 교육 문화 비전과 지역 연계 전략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자리로, 대학이 지역과 세



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주간에 운영된 다문화 부스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각국 유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교류가 이뤄졌다. 이어진 외국인 패션쇼에서는 다양한 전통의상을 입은 유학생들이 직접 런웨이에 올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캠퍼스 전역이 이국적 분위기로 물들었다. 본 무대는 중국인 유학생 밴드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문을 열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이후 내국인 학생들의 밴드댄스 무대가 이어지며 축제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관객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함께 호응하며 전북대가 지난 다문화적 매력과 포용성을 체감했다.

전북대는 이번 가을 축제뿐 아니라 지난 봄에도 지역민 참여형 글로벌 존, ESG 실천을 위한 다화용기 확산 사업, 지역 청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거점 국립대로서의 문화적·사회적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대학은 앞으로도 학생·유학생·지역사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새로운 축제 모델을 발전시키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포용적 대학문화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JBNU's 2025 Daedong Festival Opens a New Era of Glocal Campus Culture for Regional Flagship Universities

The 2025 Daedong Festival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BNU) evolved into a truly glocal celebration this fall, expanding the meaning of "Daedong"—unity—while creating a festival that connected the university with both the region and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the event was jointly organized by the Student Support Office,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the Student Union, earning high praise for establishing an open, inclusive campus culture where domestic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naturally came together. More than a series of performances, the festival served as a vivid showcase of JBNU's Glocal University 30 educational



and cultural vision, symbolizing the university's growing role as a platform that links local and global communities.

The weeklong Multicultural Booth Program offered international students a space to introduce their home cultures and share traditional foods, fostering vibrant exchanges. The International Fashion Show further enriched the festival atmosphere, as students walked the runway in traditional attire from around the world, bringing an energetic and global flair across campus. The main stage opened with a dynamic performance by a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band, drawing enthusiastic applause, followed by high-quality band and dance performances by Korean students that brought the festival's excitement to its peak. Audience members from various backgrounds cheered together, experiencing firsthand JBNU's multicultural charm and spirit of inclusivity.

In addition to its fall festival, JBNU has actively fulfilled its cultur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as a regional flagship university through programs such as the community-participation Glocal Zone, an ESG-centered reusable container initiative, and various youth engagement events held during the spring festival. Moving forward, the university aims to further develop a new festival model that seamlessly connects students,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local residents, expanding an inclusive campus culture where everyone can participate and enjoy.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 인권센터 '2025년 인권문화제' 성료

제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 9월 30일 야외음악당에서 학내 구성원과 지역주민 약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인권문화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인권문화제에는 '심: 멈춤 속에서 발견한 권리'라는 주제로 인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감하고 다양한 인권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주대내 기관들과 학생자치기구, 학내 유관부서가 함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인권문화제에 참여한 외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제주경찰청,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세이브제주바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서비스원 우리복지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여민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 나오미센터, (사)제주다크투어, 제주청년마인드링크, 월드프렌즈 총 13개 기관으로 참여자들이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인권에 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WITH' 총학생회와 학생인권위원회는 일상 속에서 인권을 다시 바라보고 쉽게처럼 따뜻한 인권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스낵으로 만드는 점자키링 만들기 △인권 숨은 날말찾기 △슬로우리크 챌린지 △인권 감정 저장소 △사이버안전 지상구역 등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또한 (사)월드프렌즈는 이날 행사장에서 여성 생생용품 20박스를 기부해 인권문화의 의미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토즈캠핑에서 캠핑텐을 대여하고, 현장에서 직접 마시멜로우로 만든 스모어쿠키와 우수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JNU, “2025 Human Rights Culture Festival”

The JNU Human Rights Center hosted the “2025 Human Rights Culture Festival” at the outdoor music hall on September 30, 2025. The event successfully concluded with the participation of approximately 900 individuals, including JNU members and local residents.

Under the subtitle ‘Rest: Rights Found in Stoppages,’ numerous events were organized to foster empathy for the importance and value of human rights among participants, and to provide experiences at various human rights-themed booths operated by Jeju Island institutions, the JNU student council, and related JNU departments.

JNU Student Council “WITH” and the Student Human Rights Commission planned various programs for students, aiming for them to reflect on human rights in their daily lives and foster a warm human rights culture, reminiscent of taking a restful break. These including; Δ Making braille key rings made with the fingertips Δ Finding hidden words for human rights Δ Slow kick challenge Δ Human rights emotion storage Δ Cyber safety ground area, etc.

Additionally, World Friends contributed to the spirit of human rights culture by donating 20 boxes of women's hygiene products at the event. To enhance participant enjoyment, Atoz Camping received an enthusiastic response by offering camping item rentals, providing marshmallow-based ‘Smear cookies,’ and giving various gifts to outstanding participants.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대인과 지역민이 함께한 ‘ACCESSIO : 환상’ 백마대동제

충남대학교가 10월 20~22일, 3일간 대덕캠퍼스 일원에서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이 함께하는 대학 축제인 ‘2025 충남대학교 백마대동제 ACCESSIO(아케시오) : 환상’을 개최했다.

이번 백마대동제는 총학생회를 비롯해 충남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개성 있는 부스와 포토존, 동아리 공연 및 가요제, 연예인 공연, 푸드트럭 등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과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주간 행사는 민주광장, 조각공원, 약대사거리 일대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테마부스, 플라마켓, 지역민 힐링존, 푸드트럭, 포토존,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의 축제를 경험하고 진학 및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특별 부스도 운영됐다.

야간 행사는 남부운동장 일대에서 가요제, 동아리 공연, 아티스트(연예인) 공연이 진행됐으며,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광장에서는 푸드트럭(야시장) 등이 운영돼 모두가 참여하는 어울림의 장이 만들어졌다.

특히, 올해 백마대동제는 단순히 대학생이 즐기는 축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ESG 부스 운영, 프로축구단인 대전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 및 선수 초청 프렌들리 데이, 백마봉사단의 헌옷 재활용 ‘Reuse Shop’ 운영 등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축제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축제의 야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남부운동장 주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등 인파가 몰리는 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직원과 전문 경호업체 인력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을 기해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로 진행됐다.

CNU’s “ACCESSIO: Illusion” Festival Brings Students and Community Togeth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NU) hosted the 2025 Baekma Daedong Festival, “ACCESSIO: Illusion,” from October 20 to 22, bringing together CNU members and local residents. The festival featured a wide variety of programs that received enthusiastic responses, including uniquely designed booths and photo zones planned and operated directly by the student council and CNU students, club performances, a singing contest, celebrity performances, and food trucks—offering events that everyone could enjoy together.

During the daytime, various programs took place around Minju Square, Sculpture Park, and the intersection near the College of Pharmacy. These included themed booths, a flea market, a healing zone for local residents, food trucks, photo zones, and hands-



on activities. In addition, special interactive booths allowed local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experience the university festival and explore college admissions and career paths.

At night, events continued around the Nambu Sports Ground with a singing contest, club performances, and celebrity shows. Meanwhile, a night market featuring numerous food trucks was held at the central square in front of the Jeongsimhwa International Culture Center, creating a vibrant and inclusive space where all participants could socialize and enjoy the atmosphere.

This year’s Baekma Daedong Festival marked a significant shift, moving beyond conventional student events to embrace broader community values and engagement, which was met with widespread enthusiasm and approval. Highlights included ESG booths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 ‘Friendly Day’ featuring Head Coach Hwang Seon-hong and players from the professional soccer team Daejeon Hana Citizen; and the Baekma Volunteer Club’s ‘Reuse Shop’ for recycling used clothing.

Extensive preparations were also made to prevent potential safety incidents, particularly in crowded areas such as the Nambu

Sports Ground during the evening programs and the Jeongsimhwa International Cultural Center. Safety personnel, consisting of faculty members and professional security staff, were strategically deployed to ensure that the festival proceeded smoothly and safely without any incidents or accidents.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 캠퍼스가 무대다, 청춘 폭발 B:Last

늦더위 가득한 9월, 충북대학교 캠퍼스가 청춘의 열기로 가득 찼다. ‘2025학년도 개신대동제 B:Last’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리며,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일 내내 활기가 넘쳤다. 이름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빛나자는 의미를 담은 이번 축제는 마라톤과 부루마볼 대회 등 참여형 이벤트부터 부스존, 포토존, 힐링존, 푸드트럭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캠퍼스를 채웠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대학 공동체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장이 됐고, 지역 주민에게도 열린 축제로 캠퍼스와 지역을 잇는 문화 공간이 되었다. 무대와 부스, 거리 곳곳에 흐르는 활기는 청춘의 자유와 도전 정



신을 그대로 담아냈다. 둘째 날 정문 대잔디밭에서 열린 개막식은 특히 뜨거웠다. 학생 팀과 초대 가수가 차례로 공연을 펼치자 학생들과 방문객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체험 부스를 돌아다니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청춘 그 자체였다. B:Last가 보여준 3일간의 열기는, 대학 축제가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학생들의 창의와 참여, 그리고 공동체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화적 장으로 자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캠퍼스를 물들인 젊음의 에너지는, 보는 이들에게도 그 열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오래 기억될 순간으로 남았다.

Stage is Set at CBNU: Youth Explosion, B:Last

Despite the lingering heat of September,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ampus was ablaze with youthful energy. The '2025 Kaesin Daedongje B:Last' (CBNU Festival) ran from September 16th to 18th, buzzing with student-planned programs for three consecutive days. True to its name—a promise to shine until the last moment—the festival packed the campus with diverse attractions, ranging from participatory events like a marathon and a Blue Marble tournament to dedicated booths, photo, healing zones, and food trucks.

Planned and participated in by students, the event served as both a showcase of the university community's energy and a

cultural bridge connecting the campus and the region by welcoming locals. The vibrant energy flowing through the stages, booths, and street corners captured the freedom and challenging spirit of youth.

The opening ceremony held on the second day at the main lawn was particularly electrifying. As student teams and invited performers took the stage, cheers erupted from students and visitors alike. The sight of attendees capturing photos, exploring experience booths, and enjoying the festival with friends was the very essence of youth.

The three-day fervor of B:Last reaffirmed the role of university festivals as cultural arenas—not mere entertainment—that confirm students' creativity, participation, and shared community identity. This youthful energy that painted the campus fully conveyed its passion to onlookers, creating long-lasting memories.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 올림제’, 장애와 비장애의 청춘이 서로의 다름을 꺼안다

강원대학교는 10월 27일(월) 춘천캠퍼스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특별한 축제, 「2025 올림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림제’는 대학 구성

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축제로, 강원대만의 따뜻하고 포용적인 캠퍼스 문화를 담고 있다.

이날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개막식은 정재연 강원대 총장의 환영사와 지역사회 주요 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축하 영상과 현장 공연이 어우러진 무대로 꾸며졌다. 특히 시각장애를 지닌 허유리 학생(사회과학대학 행정심리학부)은 아름다운 노래로 청중의 마음을 울렸다. 이어진 장애 학생의 토크콘서트와 학생동아리 ‘Co’k’의 축하공연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공감의 무대를 완성했다.

또한, 춘천캠퍼스 미래광장에서는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체험 중심 부스가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수어 배우기 △점자 맞추기 △장애인용 보조기기 체험 △스트레스 및 건강 검사 △장애인 운전교육 차량 탑승 체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을 간접 체험했다. 지역 내 장애인재활협회와 장애인체육회 등 다양한 기관도 참여해 행사의 전문성과 연대감을 높였다.

특히, 강원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커피를 직접 내린 ‘브루잉 시연’ 부스에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청각장애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선 서로 수어로 인사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 공감과 이해가 오가는 ‘소통의 장’이 된 순간이었다.

박진우 강원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며 “이번 올림제가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NU hosts the ‘Woollim Festival’ to embraces diversity beyond barriers

KNU held the 「2025 KNU Woollim Festival」 on October 27 at Chuncheon Campus, celebrating a special event that broke down barriers between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 ‘Woollim Festival’ is a barrier-free (Barrier-Free) festival jointly organized by KNU and the local community, embodying the university’s warm and inclusive campus culture.

The opening ceremony, held at the 60th Anniversary Memorial Hall, began with a welcome address by President Jae Yeon Jeong and congratulatory remarks from local dignitaries. The program featured celebratory videos and live performances as well.

Particularly, visually impaired student Yuri Heo(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sychology, College of Social Sciences), prepared a special performance that touched the audience.

Then it was followed by a talk concert led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ich broke down stereotypes surrounding disability and a celebratory performance by the student club ‘Co’k’.

At the Future Square, various hands-on experience booths allowed



participants to ‘feel and understand’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Visitors took part in activities such as △ sign language lessons △ Braille matching △ assistive device demonstrations △ stress and health checks △ adaptive driving simulations. Students from the Special Education Class at KNU High School Affiliated with the College of Education brewed and served coffee to the crowd which drew continuous attention. Meanwhile, a sign-language interaction program created heartwarming scenes of participants greeting one another in sign language — turning the festival into a genuine space of communication rather than a mere celebration.

Director Jinwoo Park of the KNU Disability Support Center remarked “Disability should not be seen as something to overcome, but as something to understand. I hope this year’s Woollim Festival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everyone to appreciate and respect diversity.”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서 만남 10개 거점국립대, 연대와 혁신의 비전을 말하다

제4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및 2025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제전 개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10개 거점국립대학교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1월 21일(금) 전북대학교서 열린 ‘2025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제전’은 전국 10개 대학 구성원 약 4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과 교류의 장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제전에는 충북대학교가 거점국립대 회장으로서 협력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았으며,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의 구성원들은 뉴스포츠 경기로 뜨겁게 달궜다.

큰 공 굴리기부터 비전탑 쌓기, 파도타기, 단체출넘기, 미션 계주까지 종목마다 참가자들의 열기와 응원이 이어졌다. 전북대 학생동아리 공연과 응원단 무대, 바비큐 파티와 경품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돼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였다. 단순한 체육행사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며, 각 대학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됐다. 행사의 열기가 이어진 다음 날, 전주 라한호텔에서는 2025년 제4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개최됐다. 여기서 논의된 핵심 화두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였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개 거점국립대 모두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전체의 동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9개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해당 과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총장대는 회장교로서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조정

역할을 수행했으며, 총장단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품질 제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국립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공동 추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국립대의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일부 총장들은 “중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 고등교육 재정지원 모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대학·국내 국립대 간 겸직 허용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공감대를 얻었다.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그만큼 확고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제전과 협의회를 통해 거점국립대는 단순한 네트워크를 넘어 교육·연구·지역 협력 전방위에서 상호 연대하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충북대는 회장교로서 이러한 흐름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대학 간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서울대와 함께 공동 실행 체계를 강화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대학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일구는 10개 거점국립대의 연대는 이제 막 본격적인 혁신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The ten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known collectively as KNU10, co-designing the future of South Korea’s higher education, gathered together. Held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n November 21, the ‘2025 KNU10 Festival’ gathered approximately 400 participants from across the ten universities for unity, exchange, and sharing the vis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BNU served as the chair university, leading the collaboration system, while members from all ten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were energized by the new sports competitions. Participants’ enthusiasm and cheers marked every event, from rolling large balls and build-

ing vision towers to wave riding, group jump rope, and mission relays. Cultural programs, including performances b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tudent clubs, the cheer squad, a barbecue party, and raffles, were also held to strengthen bonds among the participants. More than just an athletic event, the festival offered a crucial opportunity for each university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and broaden the scope of cooperation.

Following the festival’s momentum, the 4th KNU10 Presidents’ Council convened the next day at the Lahan Hotel in Jeonju. The key topic was the national initiative for balanced growth: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President Honglim Ryu of SNU officially declared active cooperation with the other nine universities, creating a new turning point for the initiative by stating that it “is not about creating multiple SNU’s, but about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all KNU10 to boost the national momentum.”

CBNU, in its crucial coordinating role as the chair university, led the presidents’ intensive discussion on the roles KNU10 must play and the joint strategies necessary to solve structural issues facing South Korea, including narrowing regional educational gaps, enhanc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nd encouraging young talent to settle in their regions.

The council also presented concrete measures to secure a stable financial foundation for the national universities. Some presidents proposed, “We must legislate a stable national higher education funding model, referencing overseas examples like China.” There was also consensus on the need to introduce a system allowing dual appointments between overseas and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to mitigate talent drain. This underscores the firm recognition that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universities is central to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festival and council meeting, the



KNU10 reaffirmed their status as a community united in mutual solidarity across the entire spectrum of education, research, and regional cooperation—far beyond a simple network. As the chair university, CBNU plans to actively pursue cooperation models—including joint research, shared educational programs, and community innovation projects—to translate this momentum into tangible outcomes.

The KNU10 Presidents’ Council will continue to strengthen its joint implementation system with SNU and pursue follow-up discussions to ensure the ‘Creating 10 SNU’s’ initiative becomes a tangible driving force for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solidarity of the KNU10, working together to shape the future of their regions and the nation, has just begun its full-scale drive toward innovation.



KNU10 Unite for Solidarity and Innovation at the Cor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4th KNU10 Presidents' Council and 2025 KNU10 Festival Conclude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회원대학 소식

News of Member Universit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IX 2025’에서 단독관 운영...대학 유망 혁신 기술 선보여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howcases Promising Innovative Technologies at “FIX 2025” with Its Own Exhibition Hall

경북대학교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열리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이하 FIX 2025)’에서 단독관을 운영하며, 대학 유망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대구가 주최하는 FIX 2025는 모빌리티, 로봇, ICT, 스타트업 등 지역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대표 전시회로,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대구국제로봇산업전’, ‘스타트업 아레나’ 등 4개 행사를 통합해 열렸다.

경북대는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부문에 참여해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과학기술실용공학부 △ICT융합연구센터 △ICT자동차융합연구센터 △학연디지털융합스케일업플랫폼센터 △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 △프로젝트빌드업 △모드어스 등 8개의 공동관을 운영했다.

참여 기관들은 차세대 모빌리티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4족보행수중모바일로봇, AI 기반 화재진압로봇, 무인 수직이착륙기 등 첨단 혁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학생창업기업인 ‘모드어스’와 ‘프로젝트빌드업’은 각각 AI 기반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작 플랫폼과 AI 네컷 렌탈 서비스를 선보여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경북대 홍보관에서는 스태프 래리·OX퀴즈·메시지월 이벤트, 기념품 배부,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KNU) operated its own exhibition hall at the Future Innovation Technology Expo 2025(FIX 2025), held from October 22 to 25 in the West Wing of EXCO in Daegu, presenting the university's promising and cutting-edge technologies.

Hosted by the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FIX 2025 is a flagship exhibition that encompasses key future industries of the region, including mobility, robotics,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tartups. The event integrated four major exhibitions—the Daegu International Future Auto & Mobility Expo 2025, the ICT Convergence Expo Korea 2025, the Daegu Robot Expo (ROBEX) 2025, and the 2025 Startup Arena—into one comprehensive platform. KNU participated in the ICT Convergence Expo Korea 2025 exhibition, organizing eight joint booths representing the following research units from the university: Department of Smart Mobility Engineering, School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ICT Convergence Research Center, ICT & Automotive Convergence Research Center, Academic-Industrial Digital Convergence Scale-Up Platform Cen-

ter, Aviation & Drone Innovation Convergence University Project Group, Project Build-Up, and ModeEarth.

The participating research units showcased a range of advanced technologies and research outcomes, including next-generation mobility energy storage systems; quadruped walking robots, underwater robots, and mobile robots; AI-based fire suppression robots; and unmanned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TOL) aircraft. Notably, student startup companies ModeEarth and Project Build-Up engaged visitors by presenting their innovative services: an AI-based brand identity creation platform and an AI photo booth rental service, respectively. In addition, KNU's promotional booth featured various interactive programs, such as a stamp rally, O-X quiz, message wall event, souvenir giveaways, and club performances, offering a lively and engaging experience for attendees.



‘그린라이프 페스타’ 개최... ESG·반려동물 체험 한자리

KNU Hosts “Green Life Festa” on October 18 — A Celebration of ESG and Pet-Friendly Experiences

경북대학교는 학생주차장에서 ‘2025 경북대 그린라이프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대(지역사회공헌센터, 수의과대학 학생회, 대구RISE사업단)와 달구벌굿라이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장은 시민들이 참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체험, 반려동물 프로그램,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무대 프로그램 △에코라운지 △펫소셜라운지 △굿라이프라운지 △그린힐링라운지 △새활용놀이터 등 6개 존으로 운영됐다.

무대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그린스테이지’ 공연과 대구콘서트하우스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또 반려동물 건강 세미나, 기다려 대회, 반려동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졌다.

에코라운지에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 등 25개 팀이 참여해 녹색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판매했다. 펫소셜라운지에서는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 친환경 반려용품 만들기, 유기동물 입양 장려 부스가 운영됐으며, 수의과대학 진료진 학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굿라이프라운지에는 경북대를 비롯해 9개 대학 공공기관·기업이 함께하는 달구벌굿라이프협의체의 ESG 활동 전시 및 시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그린힐링라운지에는 대화용기를 활용한 카페테리아와 비건 다이닝 푸드코트가 운영됐으며, 새활용놀이터에서는 폐자원을 재활용한 업사이클 놀이터와 미로찾기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실천을 위해 재사용 구조물과 친환경 축전지 전력, 공기름 잉크 홍보물 등을 활용해 현장 탄소배출을 최소화했다.

KNU held the 2025 KNU Green Life Festa at the university's student parking lot.

The event was organized as part of the Daegu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 initiative, co-hosted by KNU (Center for Community Engagement,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tudent Council, and Daegu RISE Project Group) and the Dalgubeol Good Life Council.

The festival provided an open and engaging space for citizens to experience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ractices, participate in pet-friendly programs, and explore zero-waste lifestyles. The venue featured six themed zones:

Stage Program, Eco Lounge, Pet Social Lounge, Good Life Lounge, Green Healing Lounge, and Upcycling Playground.

The Stage Program included performances by local young artists on the “Green Stage” and a special concert by the Daegu Concert House, alongside a variety of pet-related attractions such as a pet health seminar, obedience contest, and pet recreation activities.

In the Eco Lounge, 25 local social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es showcased and sold eco-friendly products and services. The Pet Social Lounge offered free pet health con-

sultations, DIY eco-friendly pet accessory workshops, and adoption booths promoting the adoption of abandoned animals. Career and admissions counseling for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was also provided.

At the Good Life Lounge, the Dalgubeol Good Life Council—comprised of nine universities,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cluding KNU—presented various ESG activities and hands-on citizen programs.

The Green Healing Lounge featured a cafeteria using reusable containers and a vegan dining food court, while the Upcycling Playground offered family-oriented programs such as an upcycled play zone and maze experience made from recycled materials.

In keeping with its zero-waste theme, the event minimized on-site carbon emissions by utilizing reusable structures, eco-friendly battery power, and soy ink-printed promotional materials.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개교 77주년...‘세계 100위권 향한 도전의 원년’ 선언

GNU Declares “Year 1 of the Bid to Enter Global Top 100” on 77th Anniversary



경상국립대학교(GNU)가 개교 77주년을 맞이했다. 경상국립대는 1948년 경남도립 진주농과대학으로 출발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해 왔다. 2021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의 통합 이후에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계 100위권을 향한 도전의 원년’을 선언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상국립대는 개교 77주년(건학 115주년)을 맞이하여 10월 20~24일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개교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의 날’, ‘연구-산학협력의 날’, ‘교육의 날’, ‘화합의 날’, ‘취업 주간’, ‘역사 사진 전시’ 등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권진희 총장은 “우리는 지나는 과거보다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총장으로서의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대학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구성원, 동문님들,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recently celebrated its 77th anniversary.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8 as Gyeongnam Provincial Jinju Agricultural College, GNU has grown alongside the region to become

one of Korea’s leading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Following its integration with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2021, the university has been advancing as a research-oriented institution at the forefront of the “glocal era.” This year marks a particularly significant milestone as GNU declares “Year 1 of the Bid to Enter Global Top 100,” demonstrating it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To commemorate its 77th anniversary (115th year since its establishment), GNU designated October 20–24 as the anniversary week and hosted various events for university members and the local community, including the “Founding Anniversary and Vision Declaration Ceremony,” “Research an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Day,” “Education Day,” “Harmony Day,” “Employment Week,” and “Historical Photo Exhibition.” President Kweon Jin-hwe stated, “We must value the future that we must navigate more than the past that we have already traversed.” He added, “With a strong sense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as president, I will reform and transform our university. I ask our members, alumni, and the local community to join forces.”

‘칠암 산학협력캠퍼스 비전 선언’

“Chilam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Campus Vision Declaration”

경상국립대학교는 10월 30일 ‘칠암 산학협력캠퍼스 비전 선언식(GNU 칠암의 선언)’을 개최하여 칠암캠퍼스를 남부권 산학협력 및 창업 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를 내외에 선언했다. 슬로건은 ‘산학연이 만나 혁신을 이루고, 지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간다’이다. ‘GNU 칠암의 선언’은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상국립대는 칠암캠퍼스를 중심으로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창업중심대학사업단,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G-LAMP사업단, 기술비즈니스센터(기술지주) 등 주요 연구소사업단을 집중 이전하여, 학문 중심 공간에서 산업 연계형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한다. 대학의 연구 역량을 산업 성장으로, 산업 성장을 지역 번영으로 연결하는 지식 순환형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On October 30,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eld the “Chilam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Campus Vision Declaration Ceremony” (Declaration of GNU Chilam), publicly announcing its commitment to developing the Chilam Campus into a hub for industry-academia cooper-

ation and entrepreneurship innovation in the southern region. Held under the slogan, “Where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Meet to Achieve Innovation, Advancing Together with the Region Toward the Future,” the Declaration of GNU Chilam holds great significance as a starting point for building a collaborative ecosystem where the university, region, and industry grow together.

GNU plans to relocate major research centers and project groups, including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Foundation, Startup Support Foundation, Startup-Centered University Project Group, Gyeongnam-Jinju INNOPOLIS Support Center, G-LAMP Project Group, and Technology Business Center (Technology Holding Company), to the Chilam Campus, transforming it from an academic-oriented space into an industry-linked innovation cluster. The university also seeks to establish a knowledge circulation-base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ystem that connects the university’s research capabilities to industrial growth and, ultimately, regional prosperity.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 × LG전자 ‘산학협력 30년’ 기념행사 개최
기술로 잇고, 사람으로 맺는...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Pusan National University × LG Electronics Hold Ceremony Celebrating 30 Years of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Connecting Through Technology, Bonding Through People... A Beautiful and Sustainable Partnership

대학의 지식과 기업의 기술이 만나 ‘30년 산학협력’의 모범이 된 부산대학교와 LG전자가 미래 3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부산대와 LG전자는 10월 2일 교내 기계관에서 「부산대학교 × LG전자 산학협력 30 NEXT INNOVATION」 행사를 갖고, 당시 LG전자 조주완 CEO 특강과 산학협력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 시작된 부산대와 LG전자의 성공적인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모델을 기념하고 향후 함께할 새로운 30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성과 공유 및 미래 협력 제언에 이어 MoU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MoU는 미래 원천기술 연구와 우수 인재 양성 그리고 신산업 창출 공동 추진을 통한 글로벌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양 기관이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및 미래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무 역량과 미래

기술 역량을 겸비한 미래 혁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과 신산업 분야 공동연구에 필요한 차세대 공동연구소 설립에도 상호 힘쓰기로 했다. AI, 디지털전환, 친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협약 체결에 앞서 부산대 기계공학과 81학번 출신인 당시 LG전자 조주완 CEO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경험의 혁신’을 주제로 300여 명의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 인재상과 산업 전망에 관한 특강을 가졌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LG Electronics, which have become exemplary examples of "30 Years of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university knowledge and corporate technology, have declared a

new leap forward for the next 30 years. On October 2nd,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LG Electronics held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 LG Electronics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30 NEXT INNOVATION" event at the Mechanical Engineering Building on campus. The event featured a special lecture by then-LG Electronics CEO Cho Joo-wan and an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ceremony. This event commemorated the successful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and talent development model,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between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LG Electronics and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30 years of collaboration. The event began with a sharing of achievements, proposals for future cooperation, and the signing of an MoU. This MoU aims to foster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n building a global technology innovation cluster through research on future core technologies, fostering talented individuals, and jointly promoting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To this end, the two organizations agreed to collaborate on developing future innovative convergence talent with both practical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rough employment-linked contract programs and future technology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ey also agreed to collaborate on establishing a next-generation joint research center necessary for joint research in future core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The agreement also includes a commitment to revitalizing joint research in areas such as AI, digital transformation,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Prior to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then-LG Electronics CEO Cho Joo-wan, a graduate of Pusan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Class of '81), gave a

special lecture to approximately 300 alumni from his alma mater, discussing the ideal corporate talent and industry outlook amidst the digital transformation.

新 해양주권 시대 선도 「부산대 장영실 AI융합연구원」 출범
국내 대학 첫 ‘AI 통번역 안경’ 시범 도입 등 AI 전환 선도

Leading the New Era of Maritime Sovereignty: "Jang Young-sil AI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Launche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Pioneering AI Transformation with Korea's First 'AI Translation Glasses' Pilot Program

‘AX 대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부산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신(新) 해양주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장영실 AI융합연구원(Jang Young-sil AI Nexus Institute)」이 10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연구원은 조선시대 위대한 과학자인 장영실의 실용정신과 창조적 과학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연구기관으로, ‘AI 융합과학주권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연구원의 전략적 추진체계인 ACTS는 AI 산업화(Acceleration), AI 코어(Core), AI 융합(Transformation), AI 강화(Superiority)를 나타내는 것으로, AI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 발전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양자(Quantum)’ 분야를 AI 융합연구 체계에 포함시켰으며, 국내외 모든 AI 연구자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플랫폼(Open Research Platform)으로 설계해 AI 융합 연구를 집중 확산시키는 전략적 연구허브로 도약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10월 부산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통번역역에 특화된 ‘AI 안경(스마트 글라스)’을 교육, 연구, 행정에 시범 도입하기도 했다. 강의나 회의 등에서 외국어를 실시간으로 인식·번역해 시야에 자막 형태로 표시하는 혁신적 교육 도구로,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20여 개 언어를 98% 이상 정확도로 지원하며 향후 70여 개 언어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산대는 ‘AI 통번역 안경’을 교수진과 행정 부서, 대학원 강의실 등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시스템의 효용성을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promoting the "AX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Project," officially launched the Jang Young-sil AI Nexus Institute on October 29 as a key hub for leading Korea's new era of maritime sovereignty. The institute is a research organization that inherits the practical and creative scientific spirit of Jang Yeong-sil, a great scientist of the Joseon Dynasty, in a modern way, and has set its vision as "Leading AI Convergence Scientific Sovereignty." The institute's strategic initiative system, ACTS, represents Acceleration, AI Core, AI Transformation, and AI Superiority, aiming to accelerate practical technological advancement through AI research. Notably, it is the first in Korea to include the Quantum field in its AI convergence research framework. Designed as an Open Research Platform accessible to all domestic and interna-

tional AI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it aims to become a strategic research hub that focuses and expands AI convergence research. Meanwhile, in October, Pusan National University became the first university in Korea to pilot AI glasses (smart glasses) specialized i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or education, research, and administration. This innovative educational tool recognizes and translates foreign languages in real time during lectures and meetings, displaying subtitles in the wearer's field of view. It currently supports over 20 languages, including English, Japanese, and Chinese, with an accuracy of over 98%, and plans to expand to more than 70 languages in the fu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pilot and operate the AI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glasses among faculty,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graduate classrooms. After evaluating the system's effectiveness, it will gradually expand its use.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관악에서 걸어온 50년의 발자취를 되새기다

Tracing 50 Years of SNU's Journey in Gwanak



관악 서울대학교의 별명과도 같은 이 단어는 많은 단과대학이 모여있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관악이 처음부터 서울대의 상징이었던 것은 아니다. 1975년, 흩어져있던 여러 단과대학이 관악캠퍼스에 모여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췄다. 10월 14일(화), 서울대 예술관에서 종합화 50주년과 개학 130주년을 기념하는 제 79회 개교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를 빛낸 사람들

1991년 시작되어 올해로 제35회를 맞이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서울대를 빛낸 인물에게 수여된다. 올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은 △故 김근태 의장(경제학

과·65) △故 박종철 열사(언어학과·84) △황동혁 감독(신문학과·90)에게 수여되었다. 황동혁 감독은 "두 분 선배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앞으로 좋은 작품, 인물,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상에 좋은 목소리를 내겠다. 작품 속 인물들한테만 좋은 일, 용감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늘 부끄러움과 감사함, 슬픔과 불의에 대한 분노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나 되어 걸어갈 길

유홍림 총장은 기념사에서 "서울대학교는 1970~80년대 선진기술 수용과 산업화를 이끌어 갈 고급 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여 명실상부

하게 한국의 지식 생태계를 주도했다"라며,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시기에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기도 했다"라고 그간의 성장을 평가했다. "故 김근태 의장과 故 박종철 열사는 그러한 역사의 증인들"이라고 평가하며, "정형화된 엘리트 의식을 벗어난 '관악 세대'의 등장은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들이 치른 값진 희생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유홍림 총장은 '경계를 넘어 세계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학문 분야간 경계를 넘는 융합적 연구와 교육을 지향하고, 다양성과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여 늘 지역과 함께하면서 동시에 더 넓은 세계를 향하는 '지평의 연결-융합-확장'을 실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바이오, 에너지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우수 연구 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 전략기술 혁신 선도 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한 유 총장은 "미래를 여는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기대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개교기념식은 개학 130주년과 종합화 50주년을 맞이해 지금의 서울대가 있기까지 기여한 인물들을 조명하고, 앞으로 서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특별한 자리였다.

Gwanak—a name almost synonymous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originates from the university's main campus, where most of its colleges are now located. Yet, Gwanak was not always the emblem of SNU. In 1975, various colleges scattered across Seoul were integrated into the Gwanak Campus, forming the unified institution we know today. On October 14, the 79th Foundation Day Ceremony was held at SNU Art Center to mark the 50th anniversary of the campus integration and the 130th anniversary of its predecessor's founding.

Distinguished Members of SNU

Marking its 35th anniversary this year, the Distinguished SNU Members Award honors graduates who have exemplified integrity, virtue, and excellence while making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nation and humanity. This year's awardees were the late Chairperson Kim Geuntae (Department of Economics, '65), the late student activist Park Jong Cheol (Department of Linguistics, '84), and Director Hwang Dong-hyuk (Department of Communication, '90). Director Hwang Dong-hyuk remarked, "I'll do my best to live up to the legacy of the two senior awardees. I'll continue to create meaningful stories, characters, and works that speak out for what is right. I don't want to only make my characters do brave and righteous things — I, too, want to live as someone who never forgets humility, gratitude, sorrow, and anger toward injustice."

The Path We Walk Together

In his commemorative address, President Ryu Hong Lim reflected on

SNU's historical growth, stating, "During the 1970s and 1980s, Seoul National University took the lead in shaping Korea's knowledge ecosystem by cultivating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who met the nation's demand for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ndustrialization." He added, "During the Yushin regime and the Fifth Republic, members of our university also stood at the forefront of Korea's democratization, dedicating themselves to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President Ryu went on to say that "the late Kim Geuntae and the late Park Jong Cheol are witnesses to that history," emphasizing that "the emergence of the 'Gwanak Generation,' freed from rigid elitism, was made possible by the noble sacrifices of those who fulfilled their historical mission."

President Ryu Hong Lim presented SNU's vision of "Beyond Boundaries, Toward the World," emphasiz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ducation that transcend academic divisions. "We aim to pursue integrative research and education that transcend disciplinary boundaries, while practicing the 'connection, convergence, and expansion of horizons'" he said, "grounded in diversity and public responsibility, always engaging with our local communities while reaching out to the broader world." Highlighting that "a university's competitiveness defines national competitiveness," President Ryu explained that SNU will expand its recruitment of top global research talent, particularly in high value-added fields such as AI, biotechnology, and energy, where international competition is fierce. He also expressed his commitment to leading SNU toward becoming a national hub for strategic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se areas. President Ryu concluded by stating, "We will gather collective wisdom and capabilities to open the future and evolve into a university that lives up to the expectations of our society."

This year's Foundation Day Ceremony, marking both the 130th anniversary of SNU's origin and the 50th anniversary of its integration, served as a special occasion to honor those who built the university we know today and to envision its future direction.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 전국 최초 AI 단과대학에서 AI 선도대학으로

From Nation's First AI College to a Leading AI University: CNU Leaps Forward

전남대학교가 교육부의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혁신 모델 7개 신규 선정(글로벌대학 30)'에 최종 지정되며, AI 대전환 시대 지역 혁신을 선도할 핵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선정은 지역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전략과 지역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전남대는 지정 과정에서 △AI-인문학 연계를 통한 인간중심 AI 인재 양성 △AI-미래모빌리티 특성화 기반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주시의 전폭적 행정·재정 지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9년 전국 최초로 AI 단과대학을 설립해 인공지능학부·빅데이터융합학과·지능형모빌리티학과를 운영해온 탄탄한 경험은 전남대만의 강점으로 작용했다. 올해 첫 졸업생 109명이 한진카카오현대자동차·포스코DX 등 주요 기업에 진출한 점은 전남대 AI 교육의 성과를 입증한다.

이번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해 전남대는 이러한 역량을 대학 전반으로 확장한

다. 전교생에게 AI 윤리·철학 등 기초소양 6학점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전공에 AI 역량을 결합하는 'AX 모듈', 마이크로디그리, 융합부전공을 확대해 "전남대에 오면 누구나 AI 역량을 갖춘다"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대 혁신계획의 중심에는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가 있다.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미래모빌리티와 문화콘텐츠를 지역의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했으며, 앰코(Amkor) 반도체 패키징 공동연구소 유치 등 실질적 산학협력 성과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전남대는 학과 중심 구조를 넘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40%를 무전공으로 선발해 학생들이 진로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했다. 여기에 순천대·목포대 등과의 공유교육 플랫폼을 도입해 국립대 간 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학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학사 유연화는 지역대학의 경계를 넘어 협력 생태계를 확장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전남대-GIST-한국에너지공대

간 '리서치 트라이앵글' 구축과도 맞물려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CNU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a core institution leading regional innovation in the era of the Great AI Transformation, following its recent selection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s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for a regional university innovation model for balanced national growth. This selection marks a critical turning point, demonstrating that a regional university can move beyond the role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to become a global innovation hub bringing national strategies and local industries.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CNU received high praise for △ Human-centric AI talent development through AI-Humanities convergence, △ Promotion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based on AI-Future Mobility specialization, and △ Ful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Gwangju City. In particular, CNU's robust experience establishing the nation's first AI College in 2019—operating the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epartment of Big Data Convergence, and the Department of Intelligent Mobility—served as a key strength. The success of its AI education was validated this year when the first cohort of 109 graduates secured positions at major companies such as KEPCO, Kakao, Hyundai Motor Company, and POSCO DX.

Through the Glocal University project, CNU aims to expand these capabilities university-wide. The university plans to establish an educational

system where "Anyone who comes to CNU acquires AI competence." This includes mandating 6 credits of basic literacy courses in AI ethics and philosophy for all students and expanding "AX (AI Experience) Modules," microdegrees, and convergence minors that combine AI capabilities with various majors.

Central to CNU's innovation plan is its alignment with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Through consultation with Gwangju Metropolitan City, Future Mobility and Cultural Content have been set as the region's core growth sectors. Tangible outcomes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re already visible, such as the attraction of the Amkor Semiconductor Packaging Joint Research Center.

Additionally, to develop convergence talent capable of working across multiple fields, CNU is moving beyond traditional departmental structures. The university will select 40% of incoming students as undeclared majors, allowing students to explore career paths freely. Furthermore, by introducing a shared educational platform with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nd Mokpo National University, CNU is connecting educational resources among national universities and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ables broader academic experiences. This academic flexibility provides a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cooperative ecosystem beyond regional boundaries and is expected to strengthen research competitiveness in alignm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 Triangle" between CNU, GIST, and KENTECH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 거점국립대 육성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력

JBNU Signs MOU with Nokia Korea to Strengthen Physical AI Competencies and Regional Innovation



전북대학교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며, 글로벌 선도기업과 함께 피지컬 AI 기반 미래 핵심기술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북대는 12월 2일 노키아 코리아와 ‘피지컬 AI 협력 및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교육·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지컬 AI 융합 분야 공동연구 및 융합 플랫폼 구축,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험·분석 장비 및 연구 시설 상호 활용, 지역기반 취창업 생태계 조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 다각적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기획과 운영, 성과관리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이번 협력이 특성화 연구대학 전환과 AI 융합 교육 혁신에 기여하고, 글로벌 ICT 기술역량을 지역 산업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산학연 협력 생

태계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JBNU) is taking proactive steps to support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by partnering with a global leading company to reinforce future key technologies based on Physical AI.

On December 2, JBNU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Nokia Korea for “Physical AI Collaboration and 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agreeing to advance joint initiatives in research, education, and industry cooperation centered on industry-driven talent development.

Under this agreement, both institutions will promote extensive collaboration, including joint research in Physical AI convergence, the establishment of a Physical AI convergence



platform, development of enterprise-orient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ared use of testing equipment and research facilities, creation of a region-based employment and start-up ecosystem, and support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o ensure concrete implementation, a working committee will be formed to jointly plan, operate, and manage the performance of the cooperation projects.

JBNU expects this partnership to accelerate its transition into a specialized research university, strengthen innovation in AI-convergence education, and apply global ICT technological capabilities to the regional industrial field—ultimately revitalizing the university-industry-research collaboration ecosystem.

전북대-카작 국립농업대, 전략적 국제협력 체제 구축

JBNU and Kazakh National Agrarian University Establish Strategic International Partnership

전북대학교가 카자흐스탄 최초의 농업특성화 대학인 카작 국립농업대학교(Kazakh National Agrarian University)와 국제 교육·연구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오봉 총장이 지난 10월 7일 추석 연휴 기간 중앙아시아 주요 대학을 방문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장한 데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양 총장은 카작 국립농업대학교를 방문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강화, 공동 연구 확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일주일 만에 협약 체결로 논의를 공식화했다.

양 대학은 협약에 따라 교수와 연구자 등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술 공동연구는 물론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원 단계에서 연구 인턴십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해외 연구기관과 산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자료 공유와 과학기술 정보 교환도 함께 추진해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 분야는 농업과 생물자원, 수의학 등 양 대학의 공동 연구 기반을 토대로 공학기술, 자연과학, 수학·통계, 사회과학, 디지털 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 산업을 아우르는 입체적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전망이다.

특히 연구 인턴십과 전문가 연수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학생과 연구자가 상호 대학을 오가며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전북대는 이를 통해 글로벌대학 30 핵심 전략인 ‘유학생 5,000명 유치’ 실현과 글로벌 연구 허브 구축에 더욱 탄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BNU) has signed a cooperation agreement with Kazakh National Agrarian University, the first agricultural-specialized university in Kazakhstan, to exp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education, research, and personnel exchange. The agreement is especially meaningful as



a swift follow-up to President Yang O-bong's visit to major universities in Central Asia on October 7 during the Chuseok holiday. During his visit to Kazakh National Agrarian University, President Yang discussed practical collaboration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student exchange programs, expanding joint research, and jointly developing academic programs. These discussions were formalized just one week later with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Under the MOU, the two universities will activate exchanges among professors, researchers, and experts; operate joint academic research projects; and establish education-research-linked programs. In particular, research internships and joint projects will be offered at the graduate level, enabling master's and doctoral students to gain experience in overseas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ustrial settings. The two universities will also promote the sharing of academic materials and scientific information to expand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s.

Collaborative fields will begin with agriculture, bio-resources, and veterinary science—

areas of shared research strengths—and will gradually expand to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and statistics, social sciences, and digital technologies. This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multidimensional international partnership model connecting education, research, and industry.

The agreement also lays the foundation for reciprocal research internships and expert training programs, allowing students and researchers to engage in on-site activities at both institutions. JBNU expects this partnership to further accelerate key Glocal University 30 strategies, including attracting 5,000 international students and establishing a global research hub.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 연구자 역량 세계적 수준 '입증'

제주대 연구자 18명, 전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

JNU researchers has been a tribute to their competency at a world-class level (November 4)

18 Scholars Ranked Among World's Top 2%



학술연구 출판 및 정보분석 기업 엘스비어(Elsevier)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이오니다스(John P.A. Ioannidis) 교수가 매년 분석해 발표하는 '전 세계 상위 2% 연구자(World's Top 2% Scientists)'에 제주대 연구자 18명이 선정됐다.

올해 전 세계 상위 2% 연구자로 발표된 제주대학교 소속 연구자는 전체 연구 기간 기준으로 8명, 최

근 1년 기준으로 17명 등 총 18명이 선정됐다. 2025년 10월 기준 계약종료 및 퇴직 연구자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18명의 연구자 중 15명이 2024년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고, 이 중 7명은 전체 연구 기간 및 최근 1년 기준 두 분야에 동시에 선정됐다.

Eighteen JNU researchers have been recog-

nized as 'World's Top 2% Scientists.' This prestigious list is compiled and published annually by Elsevier, an academic research publishing and information analysis company, in collaboration with Professor John P.A. Ioannidis of Stanford University.

This year, a total of 18 JNU researchers were selected as 'World's Top 2% Scientists.' This selection includes individuals recognized for their career-long impact (8 researchers) and those acknowledged for their contributions in the past year (17 researchers), with some researchers appearing in both evaluation categories. Researchers whose contracts had terminated or who had retired as of October 2025 were excluded from the list. Among the 18 selected, 15 researchers were repeat honorees from 2024. Of these, seven were simultaneously recognized across both evaluation categories.

다음은 세계 상위 2% 연구자로 선정된 교수 명단 The list of professors selected as the world's top 2% researchers is as follows

전체/생애 연구기간(Career-long) 기준(8명)

Career-long Researchers – 8

△전유진(수산생명의학) △김상재(기계시스템공학) △목영선(화학공학) △김기영(해양생명과학) △김민찬(화학공학) △박남제(초등컴퓨터교육) △조일형(해양시스템공학) △이정훈(데이터사이언스학) △ Prof. Jeon You-jin (Department of Marine Life

Sciences, Aquatic Life Medicine) △ Prof. Kim Sang-jae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 Mechatronics Engineering) △ Prof. Mok Young-sun (Department of Chemical) △ Prof. Kim Ki-young ((Department of Marine Life Science) △ Prof. Kim Min-chan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 Prof. Park Nam-je (Department

of Elementary Computer Education) △ Prof. Jo Il-hyung (Department of Ocean System Engineering)

최근 1년/단일년도(Single-year) 기준(17명)

Single-year Researchers – 17

△전유진(수산생명의학) △김상재(기계시스템공학) △목영선(화학공학) △김기영(해양생명과학) △

김민찬(화학공학) △박남제(초등컴퓨터교육) △조일형(해양시스템공학) △김준환(수산생명의학) △손영옥(동물생명공학) △김정식(생물교육) △변영철(컴퓨터공학) △정동원(기계시스템공학) △김도현(컴퓨터공학) △이경준(해양생명과학) △배진호(해양시스템공학) △강경아(제주천연물의약연구센터) △Piao, Meijing(제주천연물의약연구센터) △ Prof. Jeon You-jin (Department of Marine Life Sciences, Aquatic Life Medicine) △ Prof. Kim Sang-jae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Mechatronics Engineering) △ Prof.

Mok Young-sun (Department of Chemical) △ Prof. Kim Ki-young ((Department of Marine Life Science) △ Prof. Kim Min-chan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 Prof. Park Nam-je (Department of Elementary Computer Education) △ Prof. Jo Il-hyung (Department of Ocean System Engineering) △ Prof. Kim Jun-Hwan (Department of Marine Life Science, Aquatic Life Medicine) △ Prof. Son Young-Ok (Department of Animal Biotechnology) △ Prof. Kim Jeong-Sik (Department of Biology Education) △ Prof. Byun Young-cheol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Prof. Jeong Dong-won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Prof. Kim Do-hyun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 Prof. Lee Kyeong-Jun (Department of Marine Life Science) △ Prof. Bae Jin-Ho (Department of Ocean System Engineering) △ Kang Kyung-ah (Jeju Natural Pharmaceutical Research Center) △ Piao, Meijing (Jeju Natural Pharmaceutical Research Center)

‘지역혁신 선도대학 도약’... 제주대 RISE 사업단, 2025 산학협력 EXPO서 6개 부문 수상

'Leap to Leading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JNU RISE Project Group Wins 6 Categories at 2025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EXPO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강철웅)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25 산학협력 EXPO'에서 '2025 지역혁신 우수사례 대상'을 포함해 총 6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EXPO는 전국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해 산학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학연 협력 행사다. 제주대 RISE사업단은 △지역 혁신 기반의 제도 개선 △2025 지역혁신 우수사례 등 다양한 주제로 RISE 모델의 선도적 운영 성과를 전시했다

특히 '전국 최초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위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 마련을 통한 RISE의 제도화 추진' 사례로 대상(제도개선 분야)을 수상하며,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교육 혁신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마케팅 협력 프로그램'으로 우수상, △'K-교육 연구 런케이션 협력 모델'로 장려상, △전통시장 상인들의 건강관리 캠페인을 통한 정책 제안'으로 RISE-UP Challenge 우수상, △캡스톤디자인 참여 팀의 RISE IDEA 경진대회 최우수상, △RISE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혁신과 교육혁신을 동시에 실현했다.

The JNU RISE Project Group (Head Kang Chul-ung) secured a total of six awards, notably the "2025 Best Local Innovation Case Award," at the "2025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EXPO" held from October 29 to 31. The EXPO is Korea's largest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event, bringing together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companies nationwide to share best practices and foster a sustainable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 The JNU RISE Project Group showcased leading operational achievements of the RISE model, covering topics such as regional innovation-based system improvement and 2025 regional innovation best practices.

Notably, JNU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System Improvement category for 'promot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IS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dinance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a first in Korea. This initiative is gaining recognition as a global education innovation model, established through a collabo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JNU further demonstrated its commitment to both regional and educational innovation by securing various additional awards. These included: the Excellence Award for the 'Small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Marketing Cooperation Program;' the Joyment Award for the 'K-Education and Research Launch Cooperation Model;' the RISE-UP Challenge Excellence Award for 'Policy Proposal through a Healthcare Campaign for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the Capstone Design Participation Team's RISE IDEA Competition Grand Prize; and recognition for the RISE Program Participation Review Contest.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국립공주대 글로벌대학 선정,
대전-세종-충남 잇는 초광역 국립대 통합 추진**

CNU and KNU Selected as Glocal Universities,
Promoting Ultra-Regional National University Integration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글로벌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글로벌대학 사업 선정으로 충남대는 국립공주대와 대전-세종-충남을 잇는 초광역 국립대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첨단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혁신 모델 창출에 나선다.

초광역 통합 기반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국립대 통합과 대규모 벽허물기를 통한 산·학·연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최대 1,500억 원 규모의 국고와 두 대학 소재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로부터 2,000여억 원의 대응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글로벌대학 선정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에 부응해 대전-세종-충남을 잇는 초광역권 통합대학 고등교육 혁신 벨트를 구축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양성-지역정주 제고-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세계적인 인재 확보 경쟁에서 국가와 지역의 동반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우수 연구자 양성과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 혁신기관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대학 선정이 적어 지역사회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초광역 통합기반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돼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고등교육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글로벌대학 선정에 따라 양 대학은 조속히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교수·학사·행정 등 분야별 통합 관련 아젠다를 설정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통합대학의 비전과 추진 과제 및 계획, 세부 일정 등을 담은 통합계획서를 준비해 내년 3월 교육부 제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충남대 김정경 총장은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첨단 교육·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혁신모델 창출을 위해 국립공주대와 함께 힘을 모아 대전-세종-충남을 하나로 아우르는 초광역 혁신 플랫폼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글로벌대학 선정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대학 구성원, 지역사회,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NU) and Kongju National University (KNU) have been officially selected as Glocal Universiti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2025. Building on this selection, CNU will collaborate with KNU to promote the ultra-regional integ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across Daejeon, Sejong, and Chungnam. Together, the two universities will establish an advanced education and research ecosystem connected to local industries, aiming to create an innovative model for higher education in Korea.

Selected for their ultra-regional integration plan, CNU and KNU aim to build “a glocal ecosystem of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through the integ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removal of large-scale

systemic barriers.” This project will be supported over the next five years by up to 150 billion KRW in national funding and approximately 200 billion KRW in matching funds from the local governments where the two universities are located,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Chungcheongnam-do Province. Following their Glocal University designation, the universities will contribute to the national “Five Poles, Three Specials” mega-city plan for balanced regional advancement. Their shared objective is to construct a higher education innovation corridor connecting Daejeon, Sejong, and Chungnam, strengthening the virtuous cycle of nurturing local talent, enhancing regional settlement, and boosting glob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CNU and KNU will collaborate closely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innovation institutions through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framework. This partnership aims to foster top-tier researchers and strengthen research competitiveness in regionally specialized industries, contributing to both national and regional growth in an era defin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nse global competition for talent.

Crucially, as Daejeon and Chungnam have received fewer Glocal University designations than other regions, this joint selection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creating a highly promising and novel model of higher education, one that encourages experimental and forward-thinking innovation. Following the announcement, the two institutions are set to immediately establish an “Integration Promotion Committee” tasked with tackling integration specifics in crucial areas like academic management, curricula,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They will develop a comprehensive integration blueprint outlining the combined university’s vision, main objectives, and phased implementation schedule. This process will actively incorporate feedback from university staff, students, and local communities. The final, fully reviewed plan is scheduled for official submission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by March next year.

CNU President Kim Jeong-Kyoum stated, “Being selected as a Glocal University provides a significant stepping stone toward creating an advanced education and research ecosystem linked to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CNU, together with KNU, will establish an ultra-regional innovation platform connecting Daejeon, Sejong, and Chungnam. We will strive to live up to the trust and support of university members, the local community, Daejeon City, and Chungcheongnam-do.”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가 만든 중부권 진로 허브, 미래 과학기술 인재의 요람

‘2025년 지역거점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중부권)’사업으로 맞춤형 진로지원

CBNU’s Central Region Career Hub: A Cradle for Future S&T Talent
Tailored Support through the 2025 Regional S&T Talent Career Support Center (Central Region)

충북대학교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북대 진로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지역거점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중부권)’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AI 모빌리티·바이오·반도체·에너지 등 중부권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센터는 HTE(탐색-체험-확장) 진로 설계 모델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11월 1일에는 청주 오창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트랙’에서 강원도 동해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무인자동차 탑승 체험과 관제센터 견학을 진행했다. 11월 7일에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양청고와 청주고 학생들이 항원-항체 반응 실험, 의료기기 제작 실습 등을 체험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장을 경험했다. 같은 날 한국교육원대부설고 학생들은 충북테크노파크 반도체IT센터를 방문하여 반도체 제작공정과 시설을 탐방했다.

김형범 진로지원센터장은 “지역 산업의 강점을 진로 교육과 연결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라며 “중부권 산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중추형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충북대는 산업지역교육을 연결하는 새로운 진로지원 모델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Changsup Koh) is gaining attention as a pivotal hub for cultivating future S&T talent. Selected as the lead institution for the ‘2025 Regional S&T Talent Career Support Center (Central Region)’ project (hos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Korea Foundation for Science and Creativity), the CBNU Career Center is establishing a customized career support model linked to the central region’s strategic industries (AI mobility, bio, semiconductors, and secondary batteries).

Based on the HTE (Hunt-Try-Expand) career design model, the Center operates experiential programs linked directly to industrial sites. On November 1, students from Donghae Middle School in Gangwon-do

visited Cheongju’s Ochang autonomous driving test bed, ‘C-Track,’ for an unmanned vehicle ride and a tour of the control center. On November 7, students from Yangcheong and Cheongju High Schools experienced the biohealth industry at the Osong Medical Innovation Foundation, engaging in antigen-antibody reaction experiments and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practice. Concurrently, students from the Affiliated High School to KNU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oured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and facilities at the Chungbuk Technopark’s Semiconductor IT Center.

Hyungbeom Kim, Director of the Career Support Center, stated the project’s goal is to connect local industrial strengths with career education to help students design their futures, adding: “We will establish a sustainable career support system linked to central region industries, becoming a hub for cultivating talent that remains committed to the region.”

CBNU is establishing itself as a hub for cultivating S&T talent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esenting a new career support model that bridges industry, region, and education.



충북대, 자율주행 핵심기술 ‘3극 특허’ 달성…세계 시장서 기술력 입증

CBNU Achieves ‘Triadic Patent Families’ for Cor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 Global Capability Proven

충북대학교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김곤우 교수 연구팀의 ‘자율주행을 위한 단일 계층 3차원 다중 객체 검출 장치 및 방법’이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모두 등록돼 ‘3극 특허(Triadic Patent Families)’를 달성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기술의 혁신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성과로, 충북대의 연구 경쟁력을 입증한 쾌거다.

해당 기술은 단일 계층 구조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3차원 공간 내 다중 객체를 고속·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경량화와 효율성이 뛰어나다. 박태형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지원으로 인공지능 기반 핵심기술 연구와 인재양성을 이어가고 있다.

The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Gonwoo Kim at the CBNU Industrial AI Research Center (President Changsup Koh) has achieved the prestigious ‘Triadic Patent Families’ for their ‘Single-Layer 3D Multi-Object Detection Device and Method for Autonomous Driving,’ with the technology

successfully registered with the patent offices of the US, Europe, and Japan.

This feat simultaneously recognizes the technology’s innovation and commercial viability in the global market, demonstrating CBNU’s research competitiveness.

The technology utilizes a single-layer structure to enable fast and accurate detection of multiple objects within the 3D space of autonomous vehicles, offering superior lightweighting and efficiency compared to existing methods.

Taehyung Park, Director of the Industrial AI Research Center, stated, “We will actively pursu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is achievement.” Meanwhile, the Center continues its research on core AI-based technologies and talent developmen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through the ‘Innov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Local Intellectualization’ program.



김곤우 교수
Professor Gonwoo Kim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기초과학부터 국방기술까지... 「교육부 글로벌랩 사업」 2관왕 쾌거

From Basic Science to National Defense Technology: KNU Selected for Two 'Glocal Lab Projects'

강원대학교가 교육부 「글로벌랩」 사업에 2개 연구소가 동시에 선정되며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수리과학연구소(소장 강순이 수학과 교수)는 '거점형' 부문, 첨단군사과학기술연구소(소장 김익현 디지털밀리터리학과 교수)는 '컨소시엄형'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수리과학연구소는 2025년부터 9년간 총 135억 원을 지원받아 '수리모델링-AI 융합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과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정밀의료, 바이오, 농생명, 환경 등 강원특별자치도 특화 분야에서 수리과학 기반 응용연구를 확대하고, 양자컴퓨팅 등 국가 전략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군사과학기술연구소는 국민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와 함께 216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보호연구소' 과제를 수행한다. 무기체계 보호, 방위기술 보안, K-RMF 기반 평가기술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차세대 무기 공급망 보안과 인증기술을 고도화한



강순이 교수
Professor Soon-Yi Kang



김익현 교수
Professor Yeek-Hyun, Kim



다. 10월 24일(금)에는 국민대에서 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K-방산 인재양성 발대식도 함께 진행했다. 강원대는 앞서 '디지털밀리터리학과' 신설과 '강원 국방벤처센터' 유치 등을 통해 국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왔으며, 이번 「글로벌랩」 사업을 계기로 기초과학과 국방기술을 아우르는 지역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as solidified its foundation as a research-centered university by securing two simultaneous selection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s 'Glocal Lab' initiatives. The Research Institute of Mathematical Sciences(Director: Professor Soon-Yi Kang, Department of Mathematics) was selected for the 'Hub-Type' category, while the Advanced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Director: Professor Yeek-Hyun, Kim Department of Digital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was chosen for the 'Consortium-Type' category. The Research Institute of Mathematical Sciences will receive KRW 13.5 billion over nine years starting from 2025 to conduct 'Mathematical Modeling and AI Convergence Research' aimed at solving regional industrial and social challenges. The institute plans to expand mathematics-based applied research in Kang-

won Province's specialized fields—precision medicine, biotechnology, agri-life sciences, and the environment—and to advance global collaborative research by integrating its work with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such as quantum computing.

The Advanced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will collaborate with Kookmin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to carry out a 21.6 billion KRW project under the title of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Research Center.' The institute will develop key technologies in three areas: weapon system protection,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nd K-RMF-based evaluation systems, for next-generation defense supply chains. A launch ceremony was held on October 24th(Friday) at Kookmin University, including an inauguration of the center and a K-Defense talent development kickoff. KNU had previously laid the groundwork for defense-industry development by establishing the 'Department of Digital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and attracting the 'Gangwon Defense Venture Center.' With the 'Glocal Lab' initiative, the university is poised to become a regional innovation hub encompassing both basic science and advanced defense technology.

“외국인 유학생 3,000명 시대 눈앞” 글로벌 인재양성의 거점 도약

KNU Emerges as a Hub for Global Talent, attracting 3,000 International Students

강원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2,697명을 달성하며 '유학생 3,000명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이는 5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강원대가 추진해 온 국제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1,462명), 우즈베키스탄(408명), 네팔(202명), 베트남(190명) 등 아시아권 국가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유학생은 62개국에 걸쳐 다양성을 보여준다. 강원대는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를 중심으로 입학 전 단계의 사전교육부터 생활학업 정착을 위한 전 주기 관리체계를 운영,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주와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 61개국 389개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교환학생, 복수학위, 공동연구 등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 8개국에 총 14개소의 'KNU문화원'을 설치해 유학생 예비 학부 운영과 현지 기반 우수 인재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NU has reached a milestone of attracting 2,697 international students, marking a three-fold increase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signaling the imminent arrival of the '3,000 International Students Era.' This significant growth

reflects the tangible success of the university's ongoing globalization strategies. Currently over 90%, of international students come from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1,462), Uzbekistan (408), Nepal (202), and Vietnam (190), with students representing a total of 62 countries. KNU operates a comprehensive, full-cycle support system through the KNU Global Talent Network Center, offering pre-admission training as well as academic and lifestyle support. This is to ensure a smooth transition and provide a successful study experience for all international students. KNU is actively expanding its global network through partnerships with 389 universities across 61 countries, promoting exchange programs, dual degree tracks, and collaborative research initiatives. Moreover, 14 'KNU Cultural Centers' in 8 countries support local talent development through preparatory academic programs and regional outreach. Additionally, KNU is implementing tailored strategies such as linking with national scholarship programs, participating in global education fairs, and developing multilingual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nt to attract 3,500 international students by 2026 and 5,000 by 2027, to become a leading global campus.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Information to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고창섭 President Koh Chang-seop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모두의 더 나은 미래가 시작되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Great Challenge for our future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양오봉 President Yang O-Bong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독립 이라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이근배 President Lee Keun-bae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in the 4th industrial era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유희림 President Honglim Ryu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정경 President Kim Jeong-Kyoom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2020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nstruction completed in 2020.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일환 President Kim, Eel-hwa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독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독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재연 President Jeong Jae-yeon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계 구축
- 거점국립대 취업률 1위(2021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Based on 2021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mployment Statistics)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허영우 President Young-Woo Heo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공자·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 양성
- 2025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3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3rd in 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2025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최재원 President Choi Jae Weo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권진희 President Jin-Hwe Kweon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
- 2021년 3월 1일 경상국립대학교 출범(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
- 생명과학, 항공우주기계, 나노신소재 화학 분야 특성화 성공 대학
- '글로벌대학 사업' 선정...우주항공·방산 분야 글로벌 선도대학 GNU

- Launche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n March 1, 2021 (Integration of GNU and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University specializing in life sciences, aerospace engineering, nanomaterials, and chemistry
- Selected for the "Glocal University Project"...-GNU, a leading global university in the aerospace and defense industry